

## 이태준 초기 연보의 재구성과 단편소설 「누이」에 대한 고찰\*

박진숙\*\*

### 요약

이 글은 이태준이 동경에 체류했던 1924-1927년 약 3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그의 활동 및 교유의 재구성을 통해 아나키즘 체험과 문학세계의 관련성이라는 문제를 규명한 것이다. 원래 편집을 맡아 『반도산업』 발간(1926.1)을 준비해 오던 권국빈의 유고 사태로 이태준은 『반도산업』의 편집 발행인이 된다. 『반도산업』은 현재 창간호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만, 1923년 9월 관동 대진재 이후 경제에 기반한 조선 재건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잡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도산업』은 이태준이 거주하고 있었던 우애학사에도 관련이 있다. 우애학사는 미국 선교사 베닝호프가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근처에 조시기가야(雜司谷) 墓地가 있다. 이번에 필자가 새로 발굴한 시 「묘지에서」와 「지진」 두 편은 이 묘지와 동경에서 체험한 지진에 대한 내용으로 관동 대진재와 아나키즘을 동시에 환기시킨다. 조시기가야 묘지를 배경으로 한 단편소설 「누이」의 난해함도 이 묘지와 관동 대진재, 아나키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 비교적 선명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 묘지는 단순히 소설의 배경에 그치지 않고 동경 체류 기간 이태준의 사상적 근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다. 「누이」는 관동 대진재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관동 대진재 이후 일어난 학살과 그 피해자를 애도하는 소설이다.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이태준, 반도산업, 관동 대진재, 조시가야(雜司谷) 墓地, 아나키즘, 「누이」

목  
차

1. 서론
2. 『반도산업』 발간과 이태준의 교유
3. 관동 대진재와 조시가야(雜司谷) 묘지
4. 결론

## 1. 서론

이태준은 「구인회에 대한 난해 기타」(『조선중앙일보』 1935.8.11-12)에서 “우리도 그만한 민중 관념 그만한 자기 반성에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냥 막연히 민중 운동한다고 지금은 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태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이제까지 이태준 연구에서 이태준의 사상적 근거를 묻는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김택호는 “이태준이 젊은 시절 아나키즘을 비롯한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는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sup>1)</sup>라고 한 바 있다. 또 장성규는 이태준 소설에 나오는 “오스기 사카에의 문예론의 영향을 이태준이 받았다면, 이태준의 초기 단편에서 두드러지는 자선에 대한 냉소와, 뿌리뽑힌 자에 대한 애정이라는 모티프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sup>2)</sup>고 하며 프로문학

1) 김택호, 「이태준 문학과 이상적 공동체주의」, 『상허학보』 29, 2010.6, 16면.  
2) 장성규,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 『한국문화』 38, 2006.12, 146면.

진영의 과도한 목적의식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태준의 관점이 오스키 사카에의 민중예술론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문학관에 기인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두 연구는 이렇게 출발하여 이태준 문학의 ‘이상적 공동체주의’로 수렴되는 결론에 이른다. 필자 또한 이태준 문학의 이상적 공동체주의에 대해 논하며 정신주의가 그 기반이라 설명한 바 있다.<sup>3)</sup> 그럼 이태준 문학의 사상적 근거를 묻는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본고는 이 두 연구자가 제시한 문제의 구체적인 근거를 이태준의 등단 전후 일본 체험과 관련하여 설명해보려고 한다. 그동안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이태준의 아나키즘 체험과 문학세계의 관련성이라는 문제와 이태준 초기 작가·작품 연보의 재구성, 그리고 이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설명된 바 없었던 단편 소설 「누이」의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태준 동경 체류 경험과 연보의 재구성이 단편 소설 「누이」의 설명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조시가야(雜司谷) 묘지’이다.

이태준의 일본 체험에 대한 연구로는 일본 후쿠오카 대학 구마키 쓰토무(熊木勉)의 「李泰俊の日本体験」(『朝鮮學報』 216, 2010.7)이 있다. 이 논문은 이태준의 자전적 장편소설 『사상의 월야』와 전기적 사실 확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 송빈과 선교사 베닝호프의 관계를 중심으로 1925년 전후의 이태준과 선교사 베닝호프의 관계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소설 속에 묘사된 와세대 대학 청강과 이태준의 우애학사 거주 문제 등을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규명함으로써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을 처음으로 정확히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그간 연구자들이 간헐적으로 해온 이태준의 자료 발굴 결

3) 출고, 「이태준 문학과 종교적 이상주의」, 『작가세계』 2006년 겨울.

과 정리이다. 등단작 『오몽녀(五夢女)』(1925.8)를 전후하여 작품연보에 새로 추가되어야 할 몇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태준의 시를 들 수 있다.<sup>4)</sup> 특히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시 『묘지에서』, 『뜨머리에』 있는 ‘雜司谷 묘지에서’라고 하는 단서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地震』은 발굴 소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태준 초기 문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sup>5)</sup> 『묘지에서』와 『地震』은 雜司谷 묘지의 문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로 이태준의 동경 체류 당시의 활동과 교유관계 속에서 자세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당시의 교유관계는 염상섭의 소설 『유

4) 이제까지의 이태준 연보에 이태준의 시는 정리되어 있지 않았으나 연구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발굴된 시 몇 편이 연보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 중 첫 번째로 박헌호가 2003년 『상허학보』에 발굴 소개하고 해제를 붙인 시 『누나야 달 좀 보렴』과 『한강 꿈』을 들 수 있다. 이 두 편에 대해 박헌호는 “2년 뒤인 1924년 휘문고보의 학예부장으로 나아가게 만든 힘이자 『휘문』지 제2호에 6편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글을 신개 만든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잡지 『학생계』 18호(1922.11.)에 시 2편이 게재됨으로써 자기확인의 과정을 거친 점이 이태준을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중환에 의해 이미 소개된 바 있는 것으로, 『휘문』 2호(1924.6)에 실린 『부여행』(기행부문 1등), 『바람에 불너 백월을 안고』(감상문 2등 수상작), 『억울한 노릇』, 『강호에 계신 K 누님께』, 『물고기 이야기』, 단시 『믿음과 사랑』 등 6편이 있다. 『秋感』(『휘문』 창간호, 1923.1), 『살구꽃』(『배재』 6, 1924.7.15.)도 추가로 발굴 소개된 작품이다. 『동아일보』 1931년 6월 9일자에 게재된 시 『차창에서』는 안미영에 의해 발굴되어 소명출판에서 간행된 『이태준 전집』 5권에 처음 소개되었다.

필자 역시 이 논문에서 시 5편을 처음 소개하고자 하는데, 『학지광』(1926.5)에 실린 시 2편 『묘지에서』와 『地震』, 그리고 『동방평론』(1932.5)에 『파격시』라는 제목 하에 실린 3편의 시 『내 재조』·『마당에서』·『바다』가 그것이다. 이같은 발굴 작품을 통해 등단 전후 이태준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등단 초기에 이태준이 소설뿐만 아니라 시와 수필을 썼다는 점 또한 정리될 필요가 있다.

5) 다만, 이 중 『묘지에서』는 김윤식의 『염상섭 연구』(서울대출판부, 1987, 350면.) 중에서 “염상섭의 시 『지는 꽃을 밟으며』가 동경유학생 기관지 『학지광』에 실려 있다.” “이태준의 시 『묘지에서』가 같은 호에 실려 있음을 미루어 보면 염상섭을 이 잡지에 연결시킨 인물은 나도향을 따르던 이태준이었을 것이다.”라는 언급 속에서 나오는데, 시 원문이 소개되지는 않았다.

서』와 그 창작과정을 자세히 규명하고 있는 김운식의 『염상섭 연구』 및 그 외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면 보다 풍부한 설명이 가능하다.

다음 이태준의 소설 「구장의 처」(『반도산업』, 1926.1)와 「의무진기」(『춘추』, 1943.5) 발굴 소개가 김재영<sup>6)</sup>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두 편의 발굴 역시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이태준의 동경 체류 경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구장의 처」가 수록된 『반도산업』의 편집 발행 겸 인쇄인이 이태준이라는 사실은 이태준의 사상적 근거를 추정하는 데 많은 내용을 제공해 준다. 「의무진기」는 1925년에서 1927년 사이의 일본 체류 기간에 대한 이태준의 회상이 서술되어 있어 이 또한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연보의 정확한 재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장의 처」의 소설 내용이 이상촌 건설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이태준은 1924년 6월 13일 휘문고보 동맹휴교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퇴학을 당하고, 휘문고보 동창인 김연만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1925년 4월 와세다(早稻田)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 청강생으로 입학하였으며, 1925년 9월 와세다 전문학교 정치경제과 청강생으로 입학, 1926년 5월에는 두 군데 다 수속을 하지 않아 제명된 기록이 있다.<sup>7)</sup> 1927년 11월 상지대학교를 중퇴하고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위에 소개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1924년 여름부터 1927년 3년여의 동경 체류 기간 동안 이태준의 생활과 사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를 추적하면서 이를 밝혀보려고 한다. 이태준의 초기 단편 소설 「누이」는 조시가야 묘지가 소설의 배경인데, 이태준

6) 김재영, 「자료 해제 : 이태준의 소설·수필 신 자료 발굴」, 『상허학보』 13, 2004.8.

7) 熊木勉, 「李泰俊の日本体験」, 『朝鮮學報』 216, 2010.7, 85면.

초기 연보와 교유관계가 재구성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명확히 설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태준 초기 문학의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이태준 문학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반도산업』 발간과 이태준의 교유

동경 체류기간 중 이태준의 활동 및 교유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인물은 미국 선교사 베닝호프이다. 당시 와세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베닝호프는 고학생 이태준에게 숙소와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sup>8)</sup> 구마키는 이태준 장편소설에 많이 나오는 건축, 음악, 미술 분야 중 건축, 음악 분야의 지식이 일본 체험 중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음악 분야에 관해서는 베닝호프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술 분야에 대한 것은 구마키 논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본 체류 당시 화가 김지원, 김용준, 길진섭, 김주경 등과의 교유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반도산업』 발간을 중심으로 문인들과의 교유 관계를 확인해본 후, 미술 분야 화가들과의 교유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한다. 문인들과의 교유의 경우 기존의 이태준 연구에서는 나도향과의 관계 외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염상섭, 양주동, 이은상 등과의 관계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나도향이 도쿄에 간 것은 1925년 9월 전후이고, 염상섭은 1926년 1월에 도쿄에 도착했다. 먼저 와 있던 나도향의 하숙집으로 염상섭이 합류했다고 하는데, 그 하숙집은 이태준이 있던 우애학사였다.<sup>9)</sup> 이렇게 보면 『반도산업』이 창간되던 1926년 1월 무렵 이태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위의 글 참조.

9)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345-346면.

준, 김지원, 나도향, 염상섭은 우애학사에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나도향, 염상섭, 이은상<sup>10)</sup>이 닛보리(日暮里)에서 하숙을 했고, 이태준은 이 하숙에 드나들고 있었다. 이 때의 일화를 염상섭은 소설 「유서」로 탄생시킨 것이다. 나도향의 귀국 후 이은상, 염상섭은 닛보리를 떠나 동경 시내로 와서 양주동과 합류했다.<sup>11)</sup> 1925년 재도일한 양주동은 와세다대학 영문과에 진학했고 관동 대진제 희생자들을 조상하는 시 「무덤」(『조선문단』 13, 1925.11)을 발표했다.

염상섭의 소설 「유서」는 나도향의 ‘유서’ 파동과 관련한 주변인들의 반응을 쓴 것이다. 염상섭의 소설 「유서」에서 묘사되는 공장촌의 공기, B町에 있는 L의 공장 사무소, 정사하는 폐병 환자의 유서 등은 나도향으로 환기되는 일화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1926년 즈음의 동경 유학생이 처한 어떤 부분을 그려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소설에도 등장하는 조시가야 묘지 묘사 역시 단순히 들어간 것만은 아닐 것이다. 염상섭은 “우에노 공원에까지 연속한 곡중묘지(谷中墓地)를 왼편에 끼고 한걸음에 달려서 교변소까지 나왔다”<sup>12)</sup>고 곡중묘지 즉 조시가야 묘지를 언급하고 있다. 염상섭이 유학시절에 도쿄의 조시가야 묘지를 자주 찾았다<sup>13)</sup>고 하는데 ‘雜司谷 묘지’는 그 당시부터 이미 관동 대진제의 기표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923년 관동 대진제 이후 동경 유학생이 부쩍 줄었다는 통계도 있거니와 관동 대진제를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아나키즘의 기표인

10) 후에 이태준은 “虛字를 좋아한다니까 鷲山兄이 尙字를 얹어 주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노산 이은상과의 교류는 동경 체류 기간에 기반하고 있다.

11) 김윤식, 앞의 책, 346면.

12) 염상섭, 「유서」, 『염상섭 전집』, 민음사, 1987, 248면.

13) 한만수, 「만세전과 공동묘지령, 선산과 북망산 : 염상섭의 만세전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해석」, 『한국문학연구』 39, 2010.

박열과 관동 대진제는 조선 지식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관동 대진제 이후 동경에 유학한 이태준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조선유학생 학우회에 가입함으로써 동경의 분위기를 추체험할 수 있었다. 와세다 대학 주변에서 자주 개최된 관동 대진제 추도회와 관동 대진제로 학살당한 사람들이 많이 묻힌 조시기가야 묘지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관동 대진제는 동경 유학생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이태준으로 돌아가 논의를 진전시켜 보자. 이태준은 독일 후고학생으로 신문 배달을 하다가 와세다 대학에 출강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 베닝호프의 도움으로 우애학사에 살고 있었다. 1925년경 우애학사에서 나도향, 김지원 등이 같이 지냈는데, 『도향 생각 몇 가지』(『현대평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나도향과 김지원을 처음 만나게 된 과정은 『의무진기』(『춘추』, 1943.5)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五夢女」는 『朝鮮文壇』 편집자로부터 곧 소식이 왔다. 실릴 만한 수준이나 잡지에는 통과되지 않을 듯한 대목이 있어 時代日報에 보내었다 하였고, 메칠 전 時代日報로부터 「五夢女」全篇이 한 페이지에 完載된 新聞이 왔다. (중략-인용자)

아모튼 「五夢女」는 그 다음달 『朝鮮文壇』 合評에 올랐고, 거기서 有望하다는 말을 들어 꽤 즐거웠었고, 그 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로부터 稻香과 金志遠이 同行은 아니었으나 거이 한 무렵에 나타난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稻香과 志遠은 모다 나와 生面이었다. 내가 서울 있을 때 忘形의 사이였던 李根昌君의 紹介가 있어 이 분들은 東京에 내리는 길로 나를 찾아준 것이다.<sup>14)</sup>

이태준은 1925년 일본에 머물면서 단편소설 「오몽녀(五夢女)」를

14) 이태준, 「의무진기」, 『춘추』, 1943.5, 138면.



『조선문단』에 투고하여 입선함으로써 등단했다. 이 작품은 『조선문단』이 아니라 『시대일보』(1925.7.13.)에 게재되었다. 기존 연구는 그 이유를 시대일보 기자로 있었던 나도향과의 관계로 미루어 설명해 왔으나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이태준은 일본에서 처음 나도향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태준과 절친한 관계였던 이창복의 소개였기 때문이다. 김영민은 위 인용부분을 근거로, 『조선문단』 심사위원으로 「오몽녀(五夢女)」를 선정하는 데 기여했던 방인근, 당시 시대일보 사회부장이었던 현진건의 문학세계의 특징으로 미루어 보건대 현진건의 힘이 작용한 결과 「오몽녀(五夢女)」가 『시대일보』에 실리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5)</sup>

이태준은 휘문고보 재학 중인 1924년 『휘문』의 학예부장을 맡았던 전력이 있다. 더구나 소설가로 등단한 상태였고, 일본에서 조선 유학생 학우회에 가입하여 유학생들과의 교류도 있었던 상태라 『반도산업』의 편집 발행 겸 인쇄인이 된 것<sup>16)</sup>이 이상하지는 않아 보인다. 구체적인 계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다음 내용으로 이태준이 『반도산업』 편집을 맡게 된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다.

#### <社告>

본지 창간호를 11월(작년) 1일에 꼭 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못한 사정은 이릅니다.

15) 1925년 4월 홍명희가 『시대일보』의 사장이 되고, 1926년 1월 도쿄에서 이태준이 발간한 『반도산업』에 『시대일보』의 광고와 홍명희의 축하 글이 실린 것을 보면 「오몽녀(五夢女)」가 『시대일보』에 실리게 된 이유가 홍명희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려면 다른 자료가 더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16) 이태준이 잡지 편집에 관여한 첫 번째 시도가 『반도산업』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후에도 이태준은 여러 잡지의 편집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사에서는 『문장』 지 편집위원으로서의 이태준의 역할이 독보적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전후하여 여러 잡지 편집에 가담한 이력 역시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편집에 대한 일절을 혼자 맞혔든 권국빈 군이 갑작이 일어나는 사무로 인하여 중국을 순회하지 안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군은 아주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에는 넉넉히 발행할 수 잇섯싸오나 오래두고 별너서 나서는 첫 맵시를 새해 첫달을 내여바리고다간 막달에 나서기는 좀 섭섭하였습니다. 그래서 창간호 겸 신년호로 나왔습니다. 벌써 선금으로 주문하신 여러분에게 김히 사과합니다.<sup>17)</sup>

위의 사고로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이태준이 『반도산업』 편집을 맡게 된 것은, 편집 일을 혼자 하던 권국빈<sup>18)</sup>의 부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도산업』은 1925년 1월에 발간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고, 이태준이 도쿄로 간 것은 1924년 6월 이후이니 조선 유학생 학우회 모임에서 이를 알게 된 이태준이 가세했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1925년 4월 이태준은 와세다 대학 전문부 정치경제학부, 1925년 9월 와세다 대학전문학교 정치경제학부 청강생이었다. 전문부는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할 수 있는 학교이고, 전문학교는 전문부 야간 코스라고 구마키 쓰토무는 설명하고 있다.<sup>19)</sup>

이제까지 휘문고보 재학 당시 시, 수필 창작에 관심이 있었던 이태준이 동경 유학 후 전공을 정치경제학부로 택한 것을 바로 설명하기는 어려웠는데, 『반도산업』 발간 문제를 그 속에 넣어서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명쾌하게 설명된다. 『반도산업』은 조선 경제의 재건이라는 지향성을 가진 잡지였기 때문이다. 이태준의 글쓰기 능력과 편집 능력을 토대로 『사상의 월야』의 주인공 송빈의 포부를 겹쳐 놓으면 일본 유학에서 이태준이 실현하고 싶었던 포부를 구체화하는 한 방법이 『반도산업』에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 『반도산업』, 창간호, 1926.1, 67면.

18)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권국빈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안창호와 관련이 있었던 듯하다.

19) 熊木勉, 앞의 글, 85면.

『반도산업』은 1926년 1월에 창간호를 냈는데, 여기에는 광고와 여러 분야 인사들의 축하 전언이 실린다. 『반도산업』 목차 다음 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걸쳐 ‘축 반도산업 창간’ 광고가 실려 있다. 광고는 시대일보사,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개벽사, 광학서포(廣學書舖), 광문서관, 한성도서주식회사, 조선도서주식회사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재일본 조선교육연구회 기관지인 『교육연구』,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기관지 『조선운동』, 사상연구잡지 『사상운동』의 광고가 실려 있는 것으로 『반도산업』의 네트워크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또 축하 전언으로 당시 시대일보사 사장인 홍명희의 글, 사회주의자 효구 안광천, 이여성<sup>20)</sup>, 와세다 대학 문학부 사학과 재학 중이던 손진태, 『개벽』의 주요 필진이며 천도교인이자 농민운동가였던 이성환 등의 글이 동시에 실려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반도산업』의 〈편집여언〉, 〈투고 환영〉<sup>21)</sup>에 근거하면 이 잡지는 새 조선을 건설하는 농장·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잡지 한 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창간호 면면을 보면 이

20) 이 여성은 화가 이태대의 형으로 북성회, 일월회 등 사회주의 단체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자이다. 1925년을 전후한 무렵부터 이태준과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관계는 「도변야화」(『춘추』 1942.8)에 의하면 ‘好古一黨’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메칠 전, 청정(靑汀), 인곡(仁谷) 양 거사의 발의로 호고일당이 인솔되어 이조도사의 성지 분원을 순례하게 되었다.”(『도변야화』, 『춘추』 1942.8, 59면)  
호고일당에는 청정 이여성, 인곡 박창수, 상허 이태준, 근원 김용준, 김기림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경기도 광주의 분원과 양수리를 답사한 후, 이 여성은 『춘추』에 「이조백자와 분원」, 김기림은 「분원유기」를 3권 7호(1942.7)에, 이태준은 「도변야화」를 3권 8호에 게재하였다. 토선 함석태, 도천 도상봉 화백(1927 동경미술학교 졸업)과의 관계도 「도변야화」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21) 투고 환영

-실례의 말씀이나 될 수 있는 대로 통속적이어서 만흔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쉽게 써보내 주심을 바랍니다.

-집필 범위는 농촌도시를 물론하고 우리 일반의 경제사정 기타 문체.

잡지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을 넘나드는 인사들의 후원과 관심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축하 전언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산업 잡지 창간을 통해 반도의 산업 발전과 반도 민족을 부흥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글에서 '경제가 시대 사상의 중심'<sup>22)</sup> '대체로 모든 생활이 경제 기초 위에서 좌우되며 모든 분야 산업이 외국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정 한탄, 경제생활상의 자급 자족을 촉구'<sup>23)</sup>하는 내용이 주된 문제의식임을 알 수 있다.

『반도산업』에 실린 문학 관련 글은 6편으로 이 중 김지원의 시 「어마님이 그리워」, 나도향의 「생명을 실감하자」, 이태준의 소설 「구장의 처」, 金星의 시 「환상의 궁전을 부수고-민중에게 보내는 서곡」 등이 주의를 끈다. 문예면의 이러한 구성은 1925년부터 1926년 나도향, 이태준, 김지원이 우애학사에서 동고동락한 증거를 목도케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중 특이한 것은 金星의 시인데, 이 시는 '구작'으로 창작 시기를 1923년 12월 10일로 명기해 놓고 있다.

강호라는 지역의 서북 모퉁이  
불에 타고 남은 조고만 집에  
좁단한 한 간의 다다미 방이  
그것이 요사히의 나의 집이란다.

찬 겨울 느린 밤 외로운 등 아래  
얼어오는 두 손을 호호 불면서  
읽고 쓰고는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요사히의 내 삶이란다.

이백만 시민들이 단꿈 꾸울 때

22) 홍명희, 「반도산업 창간호에 대하여」, 『반도산업』, 1926.1, 41면.

23) 이원직, 「축 반도산업」, 『반도산업』, 1926.1, 42면.

나 홀노 깨여서 잠 못 일우고  
 이 생각 저 궁리에 가삼 태우는  
 이것이 요사히의 내 숨숨이란다.

나는 밤마다 그것을 듣는다  
 역매인 자들의 해방의 부르짖음  
 깃발핀 자들의 자유의 부르짖음  
 주린 자들의 빵 찾는 소래  
 헐버슨 자들의 옷 찾는 소래  
 별 만흔 창공을 가만히 흘너  
 서북편 먼 곳에서 전하여 오는  
 못 견데게 가삼 쓰린 이 소래들을  
 아- 나는 밤마다 늘 듣는다.

나는 밤마다 그것들을 본다  
 캄캄한 밤 중에 험악한 길을  
 등불 업시 걸어가는 민중의 무리(하락-인용자)

시의 내용이나 창작 시기로 미루어 보아, 이 시는 1923년 9월 관동 대진재 이후 조선 민중들과 아나키스트들의 외침과 노력을 되새기는 화자의 심정 및 각오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도산업』 발간의 촉매제가 관동 대진재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도향은 「생명을 실감하자」<sup>24)</sup>에서 “조선은 부자집 철모르는 자식처럼 배꼽흔 줄을 몰랐섯다”, “우리는 어서 조선을 아러야 하겠다”, “재생의 낙원은 노력하는 자만 드러갈 수 잇는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관동 대진재 이후의 조선에 대한 인식과 조선 재건이 필요함을 설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반도산업』은 창간호밖에 확인할 수 없지만 관동 대진재 이후 경제에 기반한 조선

24) 나도향, 『생명을 실감하자』, 『반도산업』, 1926.1, 78-80면.

재건과 관련된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잡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의 소설 『구장의 처』는 등단 이후 첫 번째 소설이 되는 셈인데, 이 작품은 고명숙이라는 여주인공이 남성 편력을 일삼다가 자신이 버린 민중운동가를 다시 만나 구장의 처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소설은 이상촌을 건설하기 위해 학교를 세운 민중운동가가 구장이 되어 남자들을 가르치고, 고명숙은 그 처가 되어 여자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명숙이 쓴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태준 소설에서 이상적 공동체 지향 의식이 이 시기에 이미 싹터 있었다는 것은 이태준 문학의 출발점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sup>25)</sup>

이태준의 이상적 공동체 지향 의식은 이태준의 장편소설 『제이의 운명』, 『청춘무성』 등에서 그려지기도 한다. 또 이 이상촌 운동 모티프는 이태준의 소설 『실락원 이야기』의 서두 부분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상업 문명과 거의 물교섭한 그 동리의 행복을 위해서 수공업의 문화를 일으키리라”라는 이상을 실현하려다 좌절하는 것이 『실락원 이야기』의 내용인데, 순사가 소설 주인공 ‘나’의 방에서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의 책 『선구자의 말』과 전력을 문제삼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반도산업』을 펴내던 1926년 무렵의 이태준을 연상시키며, 초기 이태준의 지향성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김홍식에 의하면 “오스기 사카에는 당시로서는 전면에 재현할 수 없는 관동 대진재의 문제성을 암묵적으로 환유하는 존재”<sup>26)</sup>인데, 이는 잡사곡 묘지와와의 관련성으로 아나키즘을 가리키고 있다.

잡사곡 묘지와 아나키즘의 관계는 흑색운동사, 흑우회 등 아나키즘 단체의 주소가 잡사곡과 관련되어 있<sup>27)</sup>는 데서 확인할 수 있

25) 줄고, 『이태준의 단편소설과 문학 장』, 『달밤 외』, 소명출판, 2015, 486-487면.

26) 김홍식, 『관동 대진재와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9, 2009, 214면.

27) 오장환 엮음, 『일제 하 한국 아나키즘 소사전』, 소명출판, 2016.

며, 관동 대진재와 관련된 다음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용한 시체수 십일일까지 오만 백오명

동경시에서 십일일까지 수용한 시체 총수는 오만 백오명인 데 그 중에 본소의 사만 오천 팔백칠십이명, 淺草의 이천 백십 구명, 深川の 팔백십구명이 데일 만흔 것이며 그 중의 화장 총수는 사만칠천이백사십명인데 다수한 유족은 유골을 들고 갈 곳을 몰나 매일 시내로 방황중임으로 십일부터 靑山 雜司谷의 두 묘지에 모아 처리하기로 되었다더라. (동경년보)<sup>28)</sup>

동경 잇는 동포가 구월 일일에 거행 예당

오는 구월 일일은 일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큰 디진이 이리 나서 무수한 인명이 죽고 또 우리 조선사람들은 디진 외의 만 사정으로 무수한 생명이 참혹히 피흘린 날이다. 동경일본인측 에서는 동경 시당국을 위시하여 각 방면에서 피해 추억기념회 를 행할 터이며 재동경 조선인들은 잡사곡에 잇는 일선 로동 회관에서 진재 때에 죽은 동포의 추도회를 겸하여 대연설회를 거행할 계획인데 경시당에서는 연설회는 고만두어달나고 강경 히 교섭중이라더라. (동경년보)<sup>29)</sup>

이태준은 「의무진기」에서 “무슨 探偵小説에 나오는 魔窟 같은 이 殺風景한 洋館 뒤에는 바로 절이 있고 墓地가 있었다.”<sup>30)</sup>고 쓰고 있는데, 이 묘지가 바로 조시가야 묘지인 것이다. 이태준은 1924년 여름 이후에 도일했기 때문에 관동 대진재를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우애학사에 거주하면서 관동 대진재를 간접 체험했던 것이다. 북풍회, 일월회 회원들과의 교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sup>31)</sup>, 이 단체

28) 「수용한 시체수」, 『동아일보』, 1923.9.13.

29) 「참사동포 추억기념」, 『동아일보』, 1924.8.11.

30) 이태준, 「의무진기」, 『춘추』, 1943.5. 139면.

31) 이태준, 「감사」, 『이화』, 1936.3.

“자유로 사상청년들과 접근하기 위해 신문배달을 하면서까지 이분(베닝호프-인용

에는 오랜 교유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주의자 이여성이 활동하고 있었다. 북풍회, 일월회는 사회주의 운동단체의 초기 형태로 당시 동경에서 관동 대진재 조선인학살 규명 운동과 추도회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다.

### 3. 관동 대진재와 조시가야(雜司谷) 묘지

다음은 이 논문에서 처음 발굴 소개하는 이태준의 시 『묘지에서』 (『학지광』 1926.5)이다.

平和롭게 잠자는 그대들 업헨-  
잔을 갖치 기우리든 친구들도 잇겟고  
살을 서로 견우든 원수들도 잇스리  
그러나 그대들은 기억하지 안토다

그대들의 안해나 아들이 와서  
정성껏 흘니는 눈물이라도  
그것이 그대들을 움죽일 수 업거든  
하물며 한두줄의 碑文일가 보냐

봄새는 노래하고 힌구름은 떠도네  
듯는가 보는가 움죽이는가  
그대들의 거룩한 잠터에서는  
잠고대 한 마디 들을 수 업네

3월 30일 雜司谷 墓地에서<sup>32)</sup>

자)의 보호를 뿌리치고 나오고 말았었다.”(이태준, 『감사』, 『이태준 문학 전집』 17, 서음출판사, 1988, 55면.)

32) 이태준, 『묘지에서』, 『학지광』 1926.5, 642면.



이 시는 위에 인용한 대로 시의 말미에 ‘3월 30일 잡사곡 묘지에서’라고 쓰여 있다. 잡사곡 묘지는 앞에서 언급한 조시가야 묘지이다. 이태준의 단편소설 「누이」는 조시가야 묘지 근처에 있는 셋집을 배경으로하여, 조시가야 묘지 산보를 간 주인공이 한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이다. 이태준 초기 소설에서 분류하기도 어렵고 내용 파악도 쉽지 않은 매우 이상한 작품이어서 아직 제대로 해명된 바 없었다. 그럼 그리기가 취미인 한 젊은이의 원초적 인간으로서의 성적 방황과 변민에 싸인 한 여인과의 조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고뇌의 급진적 변화 정도를 읽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위의 시와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누이」는 다른 해석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 「묘지에서」 중 아내나 아들이 정성껏 흘리는 눈물도 그 죽음을 애도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한두 줄의 비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탄식은 봄새와 흰 구름이라는 자연과 더해져 보편적인 슬픔으로 승화되는 느낌까지 있다.

또 다른 시 한 편 「地震」 역시 이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거나, 장편소설 『사상의 월야』에서 주인공 송빈이 동경에서 처음으로 지진 체험한 이야기를 써 놓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경에서의 지진 체험에 근거하여 쓴 시일 것이다. 그런데 시가 쓰여지는 순간, 이 지진은 1923년 관동 대지진을 환기시킨다.

깊은 밤  
어두운 밤  
지리한 밤에  
땅이 부시시 흔들었다

건넌집窓마다 불이 켜졌다  
이만큼 준비가 있다는 듯이  
건넌집窓마다 불이 꺼졌다

흔들면 또 켤 수 있다는 듯이

오- 영리한 그대들이여  
 지금은 잠고대하는 이 怪物이  
 한번 깨여 몸부림 하고 마는 날

어느 놈이 나서서 智者라 하리  
 어느 놈이 나서서 强者라 하리<sup>33)</sup>

시의 내용은 지진의 강력한 물리적 파괴력으로 집집마다 불이 커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 다음 전개되는 장면은 지진의 비유적 힘 즉 흔들기만 하면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추동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괴물'의 몸부림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마지막 대목은 이 괴물의 몸부림 앞에서는 지자도 강자도 무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이른다. 관동 대진재라는 자연재해와 대학살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력감의 표현으로 본다면 지나친 해석이 될까.

이태준의 글 중에 관동 대진재와 관련된 법한 「봄비소리」(『신생』 1930.3)가 있다. 나가이 요시(永井叔)의 시가 이 글에 들어 있는데, 이태준이 만들어진 연주소리를 들으며 뼈라에 적힌 시를 본 시기는 1926년 4월 전후이다.<sup>34)</sup> 명시적으로 관동 대진재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으나 나가이 요시의 시와 와세다 대학 강당 앞이라는 장소<sup>35)</sup>를 통해 관동 대진재가 환기되는 것이다. 다음 인용을 보도록

33) 이태준, 『地震』, 『학지광』 1926.5, 643면.

34) 熊木勉, 앞의 글, 93-94면.

35) 관동 대진재 추도회가 잠사곡 일화청년회관에서 열렸으며 사회주의 계열 일월회의 활동 장소도 잠사곡이었다는 사실 확인은 다음 기사 참조. 「참사동포 영혼을 동경에서 추도회」, 『동아일보』, 1923.12.25./「일월회의 확충 정기총회를 열고서 임원 개선과 새 결의」, 『동아일보』, 1925.11.1./「소작운동 압수」, 『동아일보』, 1926.7.7.

하자.

몇 해 전 이른 봄날 황혼이었습니다. 와세다 대학 강당 앞을 지나려니까 어느 깍다점 앞에 학생 수십 명이 둘러서서 무슨 소리인지 귀들을 기울이고 꿈꾸듯 서있었습니다. 나도 가까이 갔습니다. 그 속에선 주인도 보이지 않는 만들어진 소리가 가늘게 울려 나왔습니다. 무슨 곡조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릴 듯이 한없이 애달팠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의 틈을 찌시고 바투 들어섰습니다.

그 번잡한 가두에 서서 세상을 잊은 듯이 만들린을 타는 사람의 외양은 이려하였습니다.

나이는 26, 7세, 수염이 시커멓게 좋았고 큰 눈이 원뿔을 맞고 바른 뺨까지 내어댈 것처럼 인정으로 그득하였습니다. 그는 등어리를 내리덮는 장발이었으며 ‘리본’도 없는 검은 중절모를 눌러 쓰고 어깨에는 공중색 형겔에다 해자(楷字)로 ‘お互はあの大空のやうに(우리 서로 저 넓은 하늘처럼)’라고 써서 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만들린을 안았으며 꿈무니엔 다 해진 지우산 하나를 달아뒀습니다.

그는 이르는 문전마다 한 곡조씩 하였습니다. 그 집에선 예가 있든 없든 한 곡조가 끝나기 전에는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그 문 앞을 떠날 때마다 얇은 종이 한 장씩을 놓고 갔습니다.

일곱 색깔/섞여 뒤엉킨/무의 깊이

가을의 구름/허무로 허무에로/지팡이 짚고

아! 하늘이니까/돌아 너도/유기체

아! 하늘이니까/죽음아 너도/목숨<sup>36)</sup>

또, 1926년 9월 28일에는 동경 戶塚町(와세다 대학 소재지-인용자) 스크트홀에서 조선인 학생 3백여 명이 모여 동경대지진 때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지진 추도를 개최하였다. 경찰은 이 날 집회는 허가하였으나 연설 내용이 불온하다 하여 여러 차례 중지를 명하였고, 산회 시에 경관대와 충돌이 있어 7명의 학생들이 검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주로 민족주의 계열 학생들의 움직임이었다. (박찬승, 「1920년대 도일유학생과 그 사상적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30, 2004.9, 109면.)

이 글은 이태준이 동경 와세다 대학 강당 앞에서 나가이 요시가 만들린을 켜며 읊었던 시 「우리 서로 저 넓은 하늘처럼」을 다소 애상적이고 감상적인 회상으로 쓴 것이다. 나가이 요시는 요요기방에서 살았던 시인으로 관동 대진재 이후의 ‘니힐’이라는 정조를 잘 전달하는 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1920년대의 니힐은 주로 관동 대진재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관동 대진재 앞에서 느낀 이 허무감은 나가이 요시라는 떠돌이 시인의 시를 통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으며, 또 다른 아나키스트로 사형에 처해진 吉田太次郎의 『사의 참회』를 통해서도 ‘인생의 고통을 울 줄 알았던 사람’의 영향을 말하고 있다.

이태준은 「현대인의 심경 타진」(『별건곤』 61, 1933.3.)에서 “귀하의 청춘에 영향을 준 서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吉田太次郎의 『사의 참회』라고 답한다. 다음은 이태준의 답변 중 일부이다.

가장 감상적으로 쉽게 말하면 가장 슬프게 또 가장 맑은 마음으로의 책이니 소생이 첫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정말 울면서 읽은 책은 역시다 다이지로(吉田太次郎)의 『사의 참회』외다. 다시 생각하면 내 자신이 슬픈 날을 보내든 그 때인 탓도 있려니와 아모턴 아직도 책상우에 눈물자욱을 찾을 수 있는 책은 이 사형수의 수기외다. ……… 작자 역시다 다이지로는 아니었습니다. 大杉榮과 일택의 사상인으로서 지금으로부터 7년인가 8년인가 전에 어느 가을날 동경 ‘市ウ容’ 형무소에서 26세의 청춘으로 교수대에 받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형을 앞에 늦코 한 거름 한거름 닦아드러서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적은 것이 이 『사의 참회』외다. 사형수! 테로리스트! 얼마나 무서운 사람의 대명사입니까? 그에게 수기가 있다면 얼마나 전율

36) 이태준, 『봄비소리』, 『신생』 1930.3(상허학회 편, 『이태준 전집』 5, 소명출판, 2015, 211-212면.)

할 문학이겠습니까. ……….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 『사의 참회』에 있어서는 곧 저자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니 어느 한 페이지에서 어찌 털끝만치라도 흉범자의 면모를 찾을 수 있으리까. ……… 그는 정객은 아니었습니다. 악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정에서 인생의 고독을 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적나라한 인간으로서의 인간계와 자연계에 대한 침통한 관조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거룩한 일이 아니면 안될 것이외다.<sup>37)</sup>

吉田太次郎은 위 인용문을 통해 아나키스트이며 관동 대진재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이태준은 吉田太次郎의 『사의 참회』에서 ‘그가 진정으로 인생의 고독에 공감한 사람이었다’는 점에 강렬한 인상을 받은 듯하다. 이태준에게 大杉榮·永井叔·吉田太次郎은 관동 대진재와 아나키즘, 니힐이라는 세 축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누이』뿐만 아니라 이태준의 초기작 혹은 사상적 구체성을 파악하는 데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를 토대로 1926년 1월 『반도산업』을 발간 전후한 시기에, 김지원·김용준·길진섭·홍득순 등 화가들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sup>38)</sup> 이 화가들과의 교류 역시 동경 체류 경험 중 하나이다. 김지원과는 우애학사에서 동고동락했으며, 근원 김용준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의 다음 글은 그 무렵

37) 이태준, 『사의 참회』, 『조선일보』, 1933.1.28.

38) 이태준은 1930년 『매일신보』 신춘문에 미술평론 부문에 『조선화단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평문이 당선되어 미술 평단에 등단한 바 있다. 그의 미술 평단 등단은 동경 체류 당시 김지원, 김용준 등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태준은 미술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화론을 소설 창작에도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윤범모, 『김용준과 김환기 그리고 노시산방』, 『인간과 문학』 2014년 봄호./출고, 『이태준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3.8, 52-58면 참조.

의 교유 상황 및 취향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우리들은 모다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길 군(지금 동경서 미술을 연구함)과 나는 미술학교에 있었어도 흥군(지금은 종적이 묘연하다)은 농과대학에 제적하였었다. 그외에 가끔 우리집을 찾아온 사람은 상지대학에 있던 K란 친구와 와세다에서 하숙생활을 하든 리태준 군이었다. 리군은 그 때 나와 친교를 맺은 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피차에 취미상으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거의 날마다 내왕이 있었다. 임연(지금은 임린)군도 그 후 자주 왔었고 이들 외에 화학생들이 자주 들렀었다.

당시의 우리들의 우리라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나 경향은 어떠한하였느냐 하면 그때 한참 휩쓸든 쏘씨알리즘의 사조에는 비교적 냉정하였었다. 그와는 정반대라면 반대의 유미적 사상, 악마주의적 사상 혹은 니체의 초인적인 사상 또는 체홉과 같은 적막한 인생관을 토대로 한 사상 등을 동경하는 일종의 파루나상(고답파)들이었다. 태준 군은 그때부터 안톤 체홉, 투르게네프 등을 읽고 나에게 체홉의 단편을 읽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나는 몽크, 뻐어즐리 같은 사람의 그림을 몹시 조와하여 그들에 관한 전기평론 등을 읽으라고 애를 썼고 브드레트 마라루에베르하-렌 등의 시집을 탐독하고 일본의 요절한 천재 村山槐多·關根正雄 두사람의 그림과 글들을 찾으려 간다(神田) 현 책집을 매일같이 쏘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그때의 정렬을 다시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큰 뜻을 품었었고 누구보다도 로맨틱한 공상에 파무친 사람이었었다. 미래파, 입체파, 표현파 등 형형색색의 그림들을 그려 보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필코 새로운 표현양식을 발견해보려고 노력도 했다.<sup>39)</sup>

위의 글로부터 유미적·악마주의적 사상, 村山槐多·關根正雄의 글과 그림, 김용준, 이태준 등의 당시 취향과 사상의 경향성을 이해

39) 김용준, 『白痴舍와 白鬼祭』, 『조광』 1936.8, 97-98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김용준과 이태준의 사상이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태준은 자신의 사상적 경향성이나 취향에 대해 극히 말을 아끼는 성향인데 비해 김용준은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교집합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김용준이 ‘다시 오지 못하는 청춘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읽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이태준의 초기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0)</sup> 소설 「누이」의 전반부에서 화가 지망생을 그리는 장면, 감각적인 묘사 등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과 비슷하다. 김지원과의 동거나 김용준과의 관계 등 화가들과의 교유만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당시 유행했던 오스카 와일드의 예술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태준의 단편소설 「누이」(『문예공론』 제2호, 1929.6)를 보도록 하자. 「누이」는 1928년 12월작이라고 밝혀져 있다. 발표 시기와 창작 시기를 정확히 유추할 수는 없지만 「누이」에 표나게 창작 시기를 밝혀놓고 있는 점과 그 다음 작품 「행복」의 발표시기가 1929년 3월임을 감안해서 본다면 「누이」는 등단작인 「오몽녀」·「구장의 처」에 이어 세 번째 작품이 되는 셈이다. 「누이」는 기존 연구에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작품이었는데, 그 중 「누이」를 가장 공들여 설명한 연구는 박현호의 박사논문이다. 이 글에서 그는 「누이」가 “사건 진행 자체가 독자에게 명료한 의미를 전달해주지 않으며 어렵풋하게 의미를 전달”하며, “현실화되지 못한 관념이 서사화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서사구조”<sup>41)</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태준 문학의 ‘정신주의의 관념성’이라는 문제를 해명하는 단초로

40) 『반도산업』 46페이지에 재일본 조선교육연구회 기관지인 『교육연구』 광고가 있는데, 『교육연구』의 목차에 「이단자 와일드의 예술관」이 소개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41) 박현호, 「이태준 문학의 소설사적 위상」,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7, 107면.

「누이」를 설명하며 이태준의 금욕주의로 귀결시킨다.

사실 소설에서 두 번 언급되어 있는 ‘수수께끼’라는 단어처럼 조시 가야 묘지라는 배경이 환기하는 바가 관동 대진재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해석할 수 있는 최대치가 위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동 대진재라는 기의가 조시가야 묘지라는 기표로 이 소설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 소설은 매우 큰 의미망 속에 놓이게 되며 소설 속 서사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조차도 일체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작가의 자기 검열 결과가 아닐까 하는 결론에 이른다.

「누이」의 주인공 ‘나’는 화가 지망생으로 보이는데, 조시가야(雜司谷) 묘지 근처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다. ‘나’는 이웃집 젊은 부부의 냄새, 향기, 음성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밤이면 냄새, 전등 불빛까지 맹렬해지는 데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유성기 소리를 비롯한 욕망을 자극하는 냄새 때문에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몰리듯이 뜻하지 않은 밤중 산보를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다.

어젯밤에도 나는 이와 같은 모욕적 산보를 아니 나설 수가 없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잡사곡 묘지(雜司谷 墓地)가 있다. 묘지라 하여도 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덤이란 생각보다도 공원의 정서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한길이 있는 곳이어서 나는 여기서 스케치도 몇 장을 그린 적이 있는 곳이다. 나는 밤중마다 이곳에 나와 어정거렸다. 월담이나 하여 달아나오듯 혈떡거리고 처음 나서는 때에는 어둠 속에 히끗히끗 서 있는 비석들이 모조리 벌거벗은 계집으로 보이다가도 차가운 밤바람에 머리가 차츰 식어들고 저것들이 다 사람 죽은 비석들이 거니 하고 묘지에 대한 의식이 새삼스러워질 때에는 다시 센티멘탈한 인생관으로 그만 아까의 그 흥분되었던 기분을 일소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다.<sup>42)</sup>

42) 이태준, 「누이」, 『문예공론』 제2호, 1929.6, 22면.



‘나’는 성욕에 추동되어 잡사곡 묘지로 ‘모욕적 산보’를 떠나지만 묘지에 대한 의식이 새삼스러워지면 흥분되었던 기분이 일소되어 집으로 돌아가곤 한다. 이 소설의 서사는 이러한 주인공이 묘지에 나가서 한 여자를 만나 욕망에 못이겨 일종의 성추행을 하려던 중 여자의 뜻밖의 침착한 표정과 태도로 인해 자신이 밤마다 이 묘지를 찾아온 것이 사실은 육체적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놓고 있다. 한밤중 묘지 산보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 그 이유는 고독과 관련되어 있는데, 작가는 이 주인공 ‘나’의 산보 이유를 명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답답하기조차 한데,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가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은 아닐까.

성추행하려던 낯선 남성을 향해 동정 어린 연민과 같은 시선을 보내는 여성, 성추행하려던 남성과 그 대상이던 여성이 ‘우리 모두 고독한 사람’이라는 공감을 갖게 되는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작가는 왜 굳이 이런 방식을 통해 “이 알지 못할 여자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던가”라고 말하며, ‘나’의 잡사곡 묘지 산보와 ‘누이’의 묘지 산보가 사실은 동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다소 길지만 다음 인용을 보자.

그리고 그는 여전히 먼- 하늘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 고독하니 괴로우니 하는 것도 잠시 고독한 사람, 잠시 괴로운 사람들이나 하는 말일 것이다. 허구한 날 이것을 한 반려로 아는 사람에게는 신세타령이나 녀두리조차 귀찮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알지 못할 여자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던가. 나는 이 며칠 동안 그 비열한 정욕을 못이겨 이 쓸쓸한 밤중 한길을 거닐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써 내가 고독하다면 그 고독은 도야지나 개에게도 있는 그러한 고독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에겐 도야지나 개의 고독과 같을 수 없는 고독이 있었다. 우리 이웃집에 그 짧은 부처가 이사 오기 전에도 나는 몇 번이

나 몇 번이나 이 밤중 묘지의 한길을 나 홀로 어정거리었다.  
(밑줄-인용자)

세상엔 우리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 더구나 그는 남자와도 달라 한창 피려는 봉오리가 벌써 세상 물결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쓸쓸하게 가라앉으려는가. 내 가슴은 더욱 찢어졌다. 우리는 비록 하는 말은 없었다 할지라도 예서 더한 통사정과 위안이 어디 있으랴. 나에게 대한 그의 침착하고도 반항 없던 태고의 수수께끼도 이 침묵 가운데서 나는 풀어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몇 번이나 이런 걸음을 내쳤던가. 그는 얼마나 사람을 원망하며 사람을 그리기에 못 견디었던고!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손에 다시 힘을 주었다.

“용서하십시오.”

“아뇨……”

(중략)

이번은 그가 먼저 나의 손을 꼭 붙들고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말 한마디를 내 앞에 속살거리고 표연히 자기의 길을 계속하였다.

나는 이 말 한마디만은 번역하지 않고 그 입술에 올려나온 대로 적어 두려 한다.

“妾もこれから淋しい人人の味方になりますね.(저도 지금부터 외로운 사람들의 편이 되는군요-번역 인용자)”

이 한마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더욱 그가 감추고 있던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낸 듯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쉽게 사라진 남매끼리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흩어지고 만 것과 같이 사라진 그의 그림자가 몹시도 그리워지는 것이었다.<sup>43)</sup>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위와 같이 되어 있다. 위 인용한 부분에서 밑줄친 순서로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셋집 옆방에 젊은 부부가 이사오기 전에도 고독을 느꼈으며 그 때도 여러 번 밤

43) 위의 글, 24-25면.

중에 묘지로 산보를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은 성욕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추행하려는 낯선 남성에게 대해 반항하지 않고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던 여인의 태도의 수수께끼를 침묵 속에서 파악하게 되었다고 하는 대목과 말이 없는 가운데 이심전심으로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공감에 이르는 대목, 그 여자 쪽에서 먼저 ‘나’의 손을 붙들고 하던 말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낸 듯이 기쁘면서도 그리워졌다고 하는 부분은 ‘나’와 그 여인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조시기가야 묘지’이다.

앞에서 여러 자료를 통해 서술한 것처럼 조시기가야 묘지가 환기시키는 것은 관동 대진재이다. 이 소설의 ‘나’와 여인의 고독의 근원에는 관동 대진재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관동 대진재와 학살로 인해 조시기가야 묘지에 묻힌 피해자들이 묻혀 있는 묘지에서 느끼는 분노와 허무감이 ‘고독’으로 표현된 것은 이태준이 吉田太次郎의 『사의 참회』를 언급하며 ‘그가 진정으로 인생의 고독에 공감한 사람이었다’는 점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조선인인 남성이 성추행하려던 대상이 일본인 여성이라는 설정과 그 일본인 여성이 “妾もこれから淋しい人人の味方になりますね.(저도 지금부터 외로운 사람들의 편이 되는군요-번역 인용자)”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민족적 적대감을 넘어서는 연대감을 느끼고 고독에서 벗어나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누이’인 이유는 이러한 연대감이 투영된 결과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태준의 단편소설 「누이」는 관동 대진재를 언급하

지 않으면서 관동 대진재 이후 일어난 학살과 그 피해자를 애도하는 소설이다. 위 인용 부분에서 두 번이나 언급된 ‘수수께끼’는 관동 대진재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배경이 조시가야 묘지이고 조시가야 묘지 부근 와세다 대학 스코트홀과 일본여자대학 근처 일화청년회관에서 관동 대진재 피해자 추도회가 해마다 몇 회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다. 시 「묘지에서」와 「지진」, 그리고 『반도산업』 발행을 통해 조시가야 묘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설명하기 쉽지 않았던 「누이」가 관동 대진재의 기표라는 것이 이 논문의 성과이다.

#### 4. 결론

한국문학사에서 이태준은 구인회의 좌장이며 『문장』지의 편집위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태준을 예술성과 심미주의라는 장 속에서 논의되도록 일정한 방향성을 규정해온 것이다. 이와 함께 이태준 문학에서 사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프로문학측 비평가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도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었다. 특히 초기 단편소설에서 사상적 경향을 논의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논문에서는 이태준이 동경에 체류했던 1924~1927년 약 3년 여에 걸친 기간 동안 활동 및 교유의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이태준의 아나키즘 체험과 문학세계의 관련성이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이태준은 원래 편집을 맡았던 권국민의 유고 사태로 1926년 1월 동경에서 『반도산업』 발간에 참여한다. 『반도산업』은 창간호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만,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이후 경제에 기반한 조선 재건과 관련된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잡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도산업』 발간은 이태준이 살고 있었던 우애학사와 관련되어 있다. 우애학사는 미국 선교사 베닝호프가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조시가야(雜司谷) 墓地가 있다. 이번에 필자가 새로 발굴한 시 「묘지에서」와 「지진」 두 편은 이 묘지와 동경에서 체험한 지진에 대한 내용으로 관동 대진재와 아나키즘을 동시에 환기시킨다. 단편소설 「누이」는 이 묘지와 관동 대진재, 아나키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 비교적 선명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 묘지는 단순히 소설 배경에 그치지 않고 동경 체류 기간 이태준의 사상적 근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다.

『반도산업』에 실린 소설 「구장의 처」는 이상촌 건설에 관한 것으로 이태준 문학에서의 이상적 공동체주의가 이미 등단 무렵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아나키즘, 오스기 사카에 싹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나키즘과 오스기 사카에 등의 영향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태준의 아나키즘적 경향과 관동 대진재의 간접 체험이 시 두 편과 소설 「누이」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초기 작가 작품 연보의 재구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었다. 「누이」는 관동 대진재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관동 대진재 이후 일어난 학살과 그 피해자를 애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구장의 처」에 나타난 이상촌 건설이라는 아나키즘의 한 맥락과 「누이」의 관동 대진재 학살사건 앞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를 보여주는 장면은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향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반도산업』, 『학지광』, 『조선일보』, 『동아일보』  
 김용준, 『白痴舍와 白鬼祭』, 『조광』 1936.8.  
 상허학회 편, 『이태준 전집』 1, 소명출판, 2015.  
 상허학회 편, 『이태준 전집』 5, 소명출판, 2015.  
 이광희 편, 『이태준 문학 전집』 17, 서음출판사, 1988.  
 이태준, 「누이」, 『문예공론』, 1929.6.  
 이태준, 「도변야화」, 『춘추』, 1942.8.  
 이태준, 「의무진기」, 『춘추』, 1943.5.

2. 논문

- 김영민, 「이태준의 등단과정과 <오몽녀>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2, 2004.8, 117-148면.  
 김재영, 「자료 해제 : 이태준의 소설·수필 신 자료 발굴」, 『상허학보』 13, 2004.8, 531-542면.  
 김택호, 「이태준 문학과 이상적 공동체주의」, 『상허학보』 29, 2010.6, 11-38면.  
 김홍식, 「관동 대진제와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9, 2009, 175-220면.  
 민충환, 「이태준의 새로운 작품 소개」, 『상허학보』 21, 2007.10, 359-366면.  
 박지영, 「잡지 『학생계』 연구」, 『상허학보』, 2007, 121-164면.  
 박진숙, 「이태준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3.8.  
 박진숙, 「이태준 문학과 종교적 이상주의」, 『작가세계』 2006 겨울, 95-114면.  
 박찬승, 「1920년대 독일유학생과 그 사상적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30, 2004.9, 99-151면.  
 박현호, 「이태준 문학의 소설사적 위상」,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7.  
 윤범모, 「김용준과 김환기 그리고 노시산방」, 『인간과 문학』, 2014년 봄호.  
 장성규,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 『한국문화』 38, 2006.12, 137-168면.

한만수, 「만세전과 공동묘지령, 선산과 북망산 : 염상섭의 만세전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해석」, 『한국문학연구』 39, 2010.12, 95-137면.

熊木勉, 「李泰俊の日本体験」, 『朝鮮學報』 216, 2010.7, 65-113면.

### 3. 단행본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오장환 엮음, 『일제 하 한국 아나키즘 소사전』, 소명출판, 2016.

## &lt;Abstract&gt;

## Reconstruction of Chronological list of Lee, Tae-joon's Early works and a Review of His Short Novel *Nui*(=sister)

Park, Jin-Sook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relation of Lee, Tae-joon's anarchism experience to his world of literature by means of reconstruction of his activities and social intercourse during his stay in Tokyo from 1924 to 1927. Lee, Tae-joon became the editor of the magazine *Bando Industry* due to the absence of Kwon, Kuck-bin, who had been preparing for the publication of the magazine(1926.1). *Bando Industry* seems to have been a magazine planned as a part of the Korean reconstruction movement based on the economy since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September 1923, although only its first issue is now available. The magazine is also related to Woo-Ae Haksa(友愛學舍=friendly dormitory) where he lived. The dormitory was located right next to the missionary house where the American missionary Benninghoff lived and there was Josigaya(雜司谷) cemetery nearby. Poems “At a Cemetery” and “The Earthquake”, newly discovered by me, recall anarchism as well as the great Kanto Earthquake, describing the cemetery and the earthquake which he experienced in Tokyo. Josigaya cemetery was the background of his short story “*Nui*”(=sister), which can be interpreted clearly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se three points: the cemetery,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anarchism. Moreover, the cemetery is not just a background of the novel, but also a sign that penetrated Lee's ideological basis during his stay in Tokyo. “*Nui*” is a novel that mourns the massacre that occurred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its victims without referring to them.

Key words: Lee, Tae-joon, *Bando Industry*, the great Kanto Earthquake, Joshigaya cemetery, Anarchism, “*Nui*”

투 고 일 : 2018년 2월 25일    심 사 일 : 2018년 2월 26일-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9일    수정마감일 : 2018년 3월 18일